오늘의 게시판

에너지의 날 '지하철로 출근하기' 행사 오전 7시30분 광주 소태역

〈16일〉

행사

▲광주과기원 학위수여식=오후 2시 광주과기원.

▲제3회 에너지의 날 기념 '지하철로 출근하기' 행사=오전 7시30분 소태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준공식=오전 11시 풍향동 행사장.

▲호텔 현대 개관식=오전 11시 영암군 삼호읍 호텔 현대.

▲제 499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서주석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 강사로 '참여정부 안보정책'에 대해 강연.

〈17일〉

▲광주시 남자청소년쉼터 '어깨동무' 개소식=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KT 건너편 남자청소년쉼터.

공연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19일까지 광주시청 앞 야외음악당 등. '미래를 연주하자'는 주제로 국내 30개팀·해외 5개국 10개팀이 예선전 참여. 전야제 18일(금) 오후 7시.

▲북한영화 '개성시의 고려역사 유적지'상영=16일(수) 오후 2시 일곡도서관 강당.

▲북한영화 '금강산으로 가자'상영=17일(목) 오후 4시 일곡도서관 강당.

▲환경영화 '샤크'=17일(목) 오전 10시, 오후 2시 일곡도서관 강당.

전시

▲위진수 개인전=17일~23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김종준 사진전=17일~23일까지 롯데화랑.

▲김종경 한국전=17일~2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전남대 동문 조각전=17일~23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제 42회 전남도전 입상작품 광양순회전=19일까지 광양시 문예회관 제 1·2전시실.

▲북한관련 도서 전시회=20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로비. 북한 도서 150여권 전시. 북한 영화 상영.

▲땐스메탈 그룹전=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도구열전'을 주제로 금속 공예 작품 전시. 작가 19명 참여.

▲파랑새는 있다=16일까지 롯데화랑. 동신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

▲중국작가 탕마오홍의 'Sunday'전=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홍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제 7회 무등산 사랑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역사속의 오늘

▲데라우치 일본 통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한일합병 조약안 제시하고 수락 독촉(1910)

▲미국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 사망(1948)

▲미군정청, 대한민국정부에 정권이양(1948)

▲미국 여류소설가 마가렛 미첼 교통사고로 사망(1949)

▲문교부, 기초한자 1800자 확정(1972)

▲엘비스 프레슬리 사망(1977)

▲최규하 대통령 하야(1980)

뉴스퀴즈

25.최근 개봉한 이 영화가 기존의 한국영화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20개 상영관에서 줄곧 예매율 선두를 고수하며 인기 몰이를 하고 있고, 역대 최단 기간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① 괴물 ② 한반도 ③ 다세포소녀 ④ 각설탕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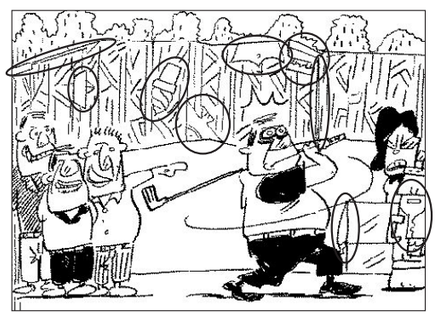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34 >



▲ 지난주 정답

열쇠, 화살, 바늘, 아이스크림, 고추, 열대어, 종이배, 왕관, 다리미

찾아보세요 열대어, 담배파이프, 커터칼, 못, 우유팩, 갈매기, 화살, 대접

◀앙큼한 할머니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들고 나올 물건은 하나도 없고 할머니 혼자 자다 깨서 앉아있으니 허탕 친 셈이었다.

오늘은 공쳤다 생각하고 그냥 나올려고 했는데 할머니 손가락에 금반지가 보였다.

하다못해 금반지라도 뺏으려고 할머니 에게….

"할머니 이리 좀 와 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지레 짐작하시고는 말씀하셨다.

"잘 될랑가 모르겠네. 해 본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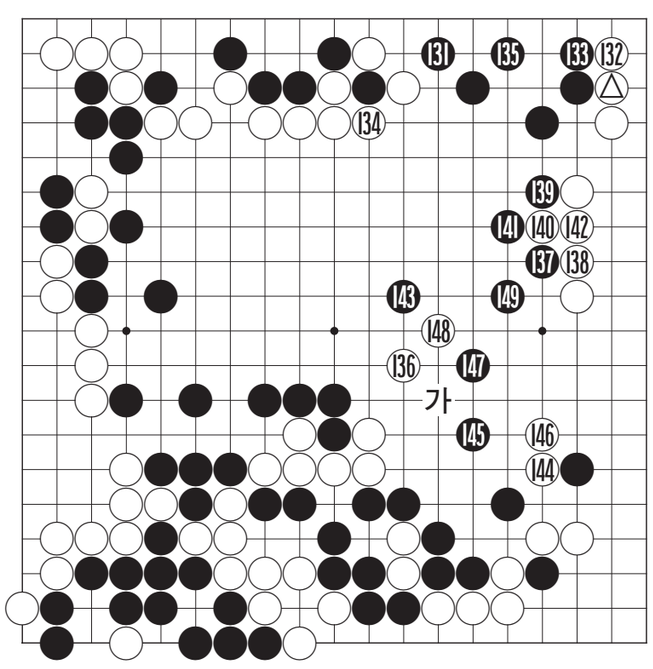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정택·고흥군 도양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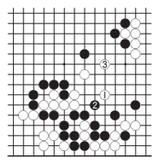
함승식·영광군 영광읍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때늦은 공격 제8보(131~149)

白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백 △로 밀어 백이 국면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이다.

박광주 5단은 불리하지만 언제 찾아 올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며 131과 135로 꾹꾹 눌러 참고 있다. 그러나 135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 수로는 139에 먼저 붙여 임시처방을 하고 '가' 부근에 두어 중앙 백 6점을 공격해야 했다. 김영수 5단이 136으로 찜찜하던 곳을 두게 되어서는 완연한 백의 페이스다.

뒤늦게 세불리를 의식했는지 박 5단은 137부터 중앙을 틀어막은 다음 이제서야 143으로 씌워 때늦은 공격 나팔을 울린다.

백 144는 위험천만한 실리챙기기다.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 3으로 빨리 중앙을 안정해야 했다. 149로 이곳이 공방이 승부처가 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삼성화재배 3회전 124명 진출

지난 14일 끝난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통합예선전 2회전 결과 299명의 예선 참가자 가운데 124명의 3회전 진출자가 가려졌다.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77명, 중국 27명, 일본 20명 등이다.

전체 참가자 299명의 국적은 한국 188명, 일본 54명, 중국 42명, 대만 14명, 미국 1명이었다. 각국 참가자의 2회전 생존율은 중국이 6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한국(41%)과 일본(37.1%)이 이었다. 대만과 미국은 단 한 명도 2회전 진출자를 내지 못했다.

최종 본선 진출자 16명은 오는 17일 결정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6일(음 7월 23일 丁丑)

子 36년생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48년생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 60년생 기류가 답답하다 막힐 곳을 살펴보라. 72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再充電을 충분히. 84년생 大苦는 없지만 큰 득도 없다 행운의 숫자 : 11, 30

丑 37년생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49년생 평범한 하루이나 苦惱數는 있다. 61년생 주변을 살펴보라 난제가 보인다. 73년생 業務上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야. 85년생 돈거래는 삼가 하라. 행운의 숫자 : 20, 34

寅 38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부끄럼이 없는지를. 50년생 할 일이 많으니 아침부터 서둘러라. 62년생 길사가 계속 되나 손아래 사람은 고통이 있다. 74년생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2, 32

卯 39년생 친가 처가 양쪽에 부모님을 살펴보라 어른이 안 보인다. 51년생 자녀로 불편하니 대안을 준비하라. 63년생 문서는 꼼꼼히 서명은 천천히 살펴서 확인하라. 75년생 재물도 불안하고 妻苦가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 22, 35

辰 40년생 개운치가 않으니 좌족을 살펴보라. 52년생 부부는 한 몸이니 의기투합에 힘쓰라. 64년생 遊興數에 속이 타니 조신해야 하리로다. 76년생 형제간의 말썽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28

巳 41년생 부부의 주변에서 소쟁이 일어나니 나누면 걱정 없다. 53년생 모든 일이 즐겁다. 나누면 배가된다. 65년생 뜻밖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77년생 욕심은 내지 말고 차분하게 돌아보며 실리로 정리해야. 행운의 숫자 : 18, 44

午 42년생 생활이 바빠지니 부부간의 사랑으로 意氣投合 쌓아보라. 54년생 직장과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6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아라. 78년생 옛 것으로 말썽 나니 대비하며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4, 16

未 43년생 사랑은 이제부터. 55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서로가 책임이다. 67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생기나 즐거운 일이다. 79년생 용기 있게 전진해도 무리 없이 맺는다. 행운의 숫자 : 24, 43

申 44년생 沈滯現狀이 나타나니 아래 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56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8년생 계획은 있으나 될 듯 될 듯 미루어진다. 80년생 빈 문서잡고 눈물날라. 행운의 숫자 : 17, 31

酉 45년생 후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라.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깨끗한 마무리가 없다. 81년생 어른의 지혜를 빌려라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1, 42

戌 46년생 枯木이 봄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구나. 58년생 희망찬 아침이다. 계획을 추진하라. 70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82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체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2, 41

亥 47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인은 괴롭다. 59년생 순조롭게 진행하니 이웃과 신용을 잃으면 만사무용이라. 71년생 큰 투자는 하지마라 손실이 걱정되니 내일로 미루라. 83년생 좋은 여성을 만날 수다 준비하고 나가라. 행운의 숫자 : 23, 4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712>

Do you mind if ~?

~해도 괜찮을까요?

A:**Do you mind if** I smoke?
B:Yes, I do. I don't want you to pollute the air.
A:What? Are you an environmentalist?
B:In fact, I am.

A:제가 담배 피워도 괜찮을까요?
B:싫은데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공기를 오염시키길 원치 않거든요.
A:어? 환경주의자군요?
B:실은... 그래요.

mind : 싫어하다, 반대하다
pollute : 오염시키다
environmentalist : 환경보호론자
In fact = as a matter of fact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12>

パティは 庭(にわ)でしますか?

파티는 정원에서 합니까?

A:**パティは 庭(にわ)でしますか?**
B:いいえ、今度(こんど)はお客様(きゃくさま)が少(すく)ないですから、居間(いま)と食堂(しょくどう)を使(つか)います。
A:準備(じゅんび)は いかがですか。
B:家内(かない)が準備(じゅんび)していますが,まだ日本の生活(せいかつ)に慣(な)れていませんから...。

A:파티는 정원에서 합니까?
B:아니요, 이번은 손님이 적으니까 거실과 식당을 사용합니다.
A:준비는 어떻습니까?
B:아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본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居間(いま) : 거실
いかが : 어떠함
慣(な)れていない : 익숙하지 않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30>

我给你照一张

내가 찍어줄께

A:这儿的风景真美、我想在这儿照张。
[illegible]
B:我给你照一张、来、站这里、"茄子"。
[illegible]
A:谢谢你。
[illegible]

A:[illegible]
B:[illegible] 지, 여기 보고, "김치".
A:고마워.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30>

燒 酎 (소 주)

불탈 소, 진한술 주

소(燒)는 화(火)+요(堯 : 높다)로, 불꽃과 연기가 높이 올라가며 타는 것을 나타낸다. 주(酎)는 유(酉 : 술병)+주(肘 : 죄다)의 생략형(寸)으로, 잘 숙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대명사 소주의 한자표기는 '燒酎'로 되어있다. 여기서 주(酎)는 다른 잡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술로 세 번 되풀이하여 증류한 전국술을 말한다. 물론 '燒酒'라고 표기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 술병에는 '燒酎'로 표기하고 있다.

소주는 원래 서아시아 수메르의 술이었는데 몽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일본원정을 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한 몽고군의 병참기지였던 안동과 제주도에서 전해졌는데, 처음에는 50도 가까운 독주(毒酒)였다. 그러나 일제시대 곡물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25도로 도수를 낮춘 것이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주라는 이름에 탈소(燒)자가 붙은 것도 독하기 때문이므로, 현재의 소주는 이름값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주는 원래 양조(釀造)한 술을 증류하여 만들었지만, 현재 공장에서 대규모로 제조되는 소주는 모두 희석식(稀釋式)으로 순수 알코올을 물로 희석한 것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